

Working Paper 2005-06

학습지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 안 국

2005. 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학습지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안국¹⁾

< 목 차 >

I. 서문	1
II. 지역과 경제발전	3
III. 지역과 학습	8
IV. 지식의 성격 및 지역화	12
V. 학습지역 개념의 문제점	15
VI. 결론 - 지역 학습을 위한 정책 방안	18
참고문헌	19

지역간 불균형적 발전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현재 각 지역을 지역혁신체제화 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지역 발전의 역량에서 중요한 핵심은 학습하는 능력이다. 지식기반경제하에서 학습은 집합적 학습과정으로 이루어지며, 통상 지역을 단위로 상호 교류하면서 이루어진다. 교류적인 집합 학습의 대상이 되는 지식은 암묵적 지식으로, 그 전달의 용이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코드화되어, 지역에서의 학습과정을 야기한다. 지역에서 집합적 학습, 상호 교류하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간,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교류적인 집합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는 상호간의 협조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정부는 지역에서의 학습하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원을 해야 하며,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E-mail: ahnkook@krivet.re.kr)

I. 서 문

우리나라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집중되고 있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총생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다. 더욱이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대학이 피폐하게 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인적자원의 개발조차 여의치 않게 되며, 이는 다시 지역간 불균형을 가속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백성준 외, 2002)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으로의 경제활동의 집중은 경제지리학에서 늘상 언급하는 집중(agglomeration)의 이득 실현 과정이라 파악할 수도 있다. 대규모 집중화 및 지역적 특화는 범세계적이고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현상이며, 오늘날 국민경제의 발전은 이러한 지역적 집중의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²⁾ 특히 도시지역은 자본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산업체계에서 기업의 전후방 연계의 동학이 갖추어져 있고, 숙련별로 밀도있는 노동시장이 성립하고 있으며, 학습과 혁신효과를 증진하는 지역화된 관계자산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서 특권적인 위치를 갖는다. 물론 그러한 집중으로 인한 과밀화 및 혼잡, 주거비용의 상승 등의 비용 증가가 있겠지만 집중의 이득이 그 비용을 상회하는 이상 집중의 과정이 지속될 것이라 경제지리학자들은 파악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의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제적 발전의 지체이다. 우리의 경우 수도권의 경제활동의 집중은 타지역으로부터의 인적자원의 집중에 의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의 경제발전의 지체는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 정책 등으로만은 해결될 수 없고, 오직 지역의 경제발전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지역을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고, 산자부의 4대 지역 산업진흥계획, 9대 지역 산업진흥 계획 등의 지역 불균형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산자부와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각 지역을 혁신체제로 변화시키고, 각 지역이 경제적 발전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³⁾

2) Scott and Storper(2003)은 경제적 집중이 일어나는 대도시 지역이 특히 수출지향적 산업화가 일어나는 국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의 핵심이라 파악한다.

3) 최근에는 전남 무안 등이 기업도시로 선정되어 자본투자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주도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고, 또 조만간 혁신도시를 선정하여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산·학·연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획하고 있다.

최근의 지역발전 기획들은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한 지역의 역량 강화 및 경제 발전을 꾀하는 전략이라 종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획들이 지역 발전의 구체적 동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역에서의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외국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지역에서의 경제적 발전의 내재적 동학을 지역에서의 학습 활성화, 즉 학습지역의 구축이라 파악하고, 학습지역에 대한 외국의 연구문헌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의 학습의 활성화이다. 지식 기반 경제하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지식이며, 그러한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이 학습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에서의 학습의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의 혁신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학습지역(learning region)의 용어로 혁신지역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Boekema et al., 2000 등) 이렇게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은 바로 학습지역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등치될 수 있으며, 그러한 방안 및 정책 대안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Cooke and Morgan, 1998; Boekema et al., 2000; Asheim, 1996; Lundvall and Johnson, 1994; Storper, 1993; Camagni, 1991 등)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시작인 우리나라의 경우 학습지역화가 이루어진 지역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학습지역에 대한 논의도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에서의 학습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평생학습 도시가 있고, 현재 몇 개의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의 산업활동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습지역의 본래적 의미와는 크게 다르다. 이에 본고의 검토는 주로 외국의 학습지역에 대한 연구들에 한정한다.

학습지역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아직은 학습지역을 정합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예컨대 학습지역에서의 학습대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암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그와 연관되는 문제로 지역의 범위는 어떠한지, 암묵적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 및 작동의 기제가 무엇인지, 학습 과정에의 참가자가 누구인지, 기업간 경쟁과 협조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다. 또한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에 학습지역 개념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는 내실있는 지역혁신체제 및 학습지역의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고는 학습지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지역과 경제발전의 문제를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 다음으로 학습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검토해 볼 것이다. 학습경제의 개념, 학습과정 및 학습 대상으로

서의 지식의 성격, 학습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환경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II. 지역과 경제발전

세계화의 진전과 경쟁의 격화 속에서 지역이 경제발전의 단위로서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다. 지역은 생활의 단위로서 산업생산의 단위로서 세계 경제의 한 부분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이후 자본이 점점 유연화되고, 생산과정 및 관리 통제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및 수송 기술에 의해 극히 분절화됨에 의해 다국적 기업이 세계 곳곳에 진출하면서, 국민국가는 공동화(hollowing out)되어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부분들인 지역들이 사회경제적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하게 된 양상을 의미하는 것이다.⁴⁾(Jessop, 1994)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탈규제화된 자본의 이동은 국민국가 내에서 국가의 하위 수준, 즉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확보하는 전략, 즉 지역의 경쟁력과 혁신 역량 확보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그렇지만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 지역 의미는 90년대 이후 중요하게 부각된다.

1980년대까지의 다국적 기업의 활동은 시장, 생산품, 생산과정의 표준화로 특징지어지며, 이들에 의한 세계화는 세계 각 지역의 특정한 능력이나 가용능력에 관심을 갖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 다국적 기업들은 지역의 선택에서 다만 양질의 인프라구조, 통신시설 인프라, 국제공항, 거주환경 등의 일반적 조건을 고려할 뿐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게 된다. 90년대 이후 세계화의 과정은 상품 공급에서 기술혁신의 창출로 방향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방향 전환은 세계화에서 지역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하였다. 혁신의 과정이 다양한 특수 능력들과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성에서 지역적 차이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제 지역의 선정은 일반적 조건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한 이점(핵심능력)들에 의해 추동되었다. 그러한 다국적 기업의 지역 선정(입지)은 해당 지역의 높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과 연구기관들과의 연계를 수립하는 것이었다.(Gordon, 1996)

4) Jessop(1994)은 이러한 변화를 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의 이행, 구체적으로는 케인지언적 복지국가의 슈페터리안적 근로복지 국가로의 이동의 일환으로 파악한다.

국민국가의 입장에서 지역은 불균형적 발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유의 대상이었다. 지역간 불균형적 발전을 보기 위해 경제성장이론 및 실증의 연구들을 간단히 보면, 먼저 Barro and Sala-i-Martin(1995)는 미국과 일본, 유럽 8개국에서 지역적 수렴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들의 지역들은 각기 국가의 평균에 수렴하는 속도가 1년 2%로 유사하였다.⁵⁾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서 70년대말 이후에는 지역적 소득이 분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럽만 보면 지역단위가 큰 NUTS1⁶⁾의 수준에서는 75-91년 사이 1%로 수렴하였지만 NUTS2의 수준에서는 0.4%로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수렴폭의 분산은 경기상승기에 더 커지며, 수렴의 속도는 81년 이후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Martin and Sunley, 1998) 유럽에서 고용증가율의 지역 편차는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속적이다.(Martin and Tyler, 2000)

미국의 경우 지역적으로 고용증가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를 빨리 창출하는 지역들은 지속적이며, 그렇지 않은 주들은 느린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편차는 임금증가율의 지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Porter, 2003)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지역간의 발전의 격차가 줄어드는 정도가 80년대 이후에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지역간의 경제 성장에서 지속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경제성장의 지역적인 편차가 많다. 지역총생산 추계는 수도권에서는 총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타의 지역은 대부분 총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즉 수도권 위주의 경제 집중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성장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노동시장을 연구한 정인수 외(2003)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에 고용성고가 좋았던 지역이 외환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고용성고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지역간 일자리 창출 능력의 차이는 일자리소멸에서의 차이보다는 일자리창출에서의 차이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격을 갖는다.

강동희(2000)의 경우 지역실업율이나 임금에 지역적 충격이 가해질 경우 이 변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국적 변동추세를 제거한 정상수준으로 회복되는 반면, 지역 고용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시간이 지나가도 영구히 그 영향이 남는 것을 실증하

5) 2%의 수렴속도는 초기의 차이가 반 정도로 줄어들기 위해서는 약 35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6) NUTS(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 for Statistics)는 EU의 지역적 통계 단위이다. NUTS 1수준은 인구 3백만 - 700만, NUTS 2 수준은 인구 80만 - 3백만, NUTS 3 수준은 인구 15만 - 80만이다.

였다. 이를 통해 강동희는 수도권으로의 고용의 집중을 설명하고 있다. Park(2001)도 수요와 공급 측면의 외부충격에 대해 노동시장의 동학적 조정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외부충격이 임의보행(random walk)하는 경우 지역간 임금수준의 격차에는 단기적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간 고용수준의 격차에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이고 있다.

<표 1> 지역총생산의 연도별 추이

(단위: 조, 서울=100일 때의 값)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서울특별시	52.4	100	88.9	100	127.1	100	138.5	100	154.9	100
부산광역시	14.4	28	23.2	26	32.5	26	33.8	24	39.6	26
대구광역시	8.8	17	14.5	16	20.4	16	20.8	15	22.1	14
인천광역시	9.3	18	16.4	18	25.2	20	26.2	19	30.8	20
광주광역시	0.0	0	7.8	9	11.4	9	12.6	9	14.3	9
대전광역시	0.0	0	8.4	9	11.6	9	13.6	10	16.0	10
울산광역시	0.0	0	0.0	0	0.0	0	28.4	20	32.6	21
경기도	30.0	57	53.7	60	85.8	67	111.8	81	133.6	86
강원도	8.0	15	11.1	12	14.8	12	16.5	12	18.4	12
충청북도	5.9	11	9.5	11	15.2	12	19.5	14	21.8	14
충청남도	13.9	26	14.9	17	20.9	16	29.0	21	34.9	23
전라북도	8.2	16	11.8	13	16.8	13	19.0	14	20.9	14
전라남도	14.2	27	16.3	18	23.9	19	26.9	19	29.4	19
경상북도	14.5	28	21.7	24	29.6	23	38.4	28	47.3	31
경상남도	18.7	36	30.8	35	45.4	36	37.7	27	45.5	29
제주도	2.1	4	3.2	4	4.9	4	5.3	4	6.2	4

주: 2000년도 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총생산계정

과거에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불균형적 발전을 치유하기 위해 성장이 더딘 지역을 보조하는 것이었다. 즉 지난 반세기 동안 지역정책은 주로 지역의 침체를 막기위한 시도들이었다. 거기에는 통상 산업보조금, 세금 면제, 인프라구조 제공, 저개발지역에 대한 직접적 자본투자, 재훈련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은 지역 경제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적, 제도적 기초에 대한 접근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지역정책에 변화가 나타났다. 근래에 국민국가의 지역정책의 주요 초점은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지역들을 치료하는 것에서 지역들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초점 변화는 이전의 물적투자나 보조금 지원의 정책에서 지식과 혁신을 추동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바뀐 것과 맥을 같이한다.(OECD, 2004) 이러한 지역정책은 지역노동시장정책, 교육과 훈련, 기술이전,

지역모험자본 구축, 혁신센터, 과학공원 등의 조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촉진하기 위한 지역 연대의 구축에 따른 지역정부의 재조직화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정부(government)에서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로의 이동이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역정부, 지역연합, 지역상공회의소, 지역모험자본, 지역교육기관, 지역 연구단체등을 지역 경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Jessop, 199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 정부가 '지역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국가균형발전법(2004. 1. 16)을 제정하여, 각 지역을 혁신체제로 구축함으로써 각 지역의 경제발전의 역량을 강화하여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으며, 지역 혁신체제의 구축에서 지역이 중심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이렇게 1990년대 이후의 지역은 한 국민국가의 입장이나 다국적 기업의 입장 모두에게 경제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지역에서의 경제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위에서 보았듯이 지역에서의 경제발전은 자본투자만의 함수는 아니며, 인적자본까지 포함하면 설명력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모두가 아니다. 물질 자본과 인적자본 외에 지역 경제발전에는 여러 요소가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역간 성장의 분기에 대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이 새로운 기술과 그 아이디어의 확산의 함수로 파악하는 경향이 많다. 즉 각국의 경제 성장의 차이는 새로운 기술의 창출, 흡수, 적용, 적합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방식으로 지식이 창출되고 확산되며, 혁신의 인센티브가 증가하여 기술진보율 및 성장률을 증가시키는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해 경제지리학자들은 외부경제성의 개념을 이용해 지역적 성장을 설명해왔다.⁷⁾(Scott and Storper, 2003) 이러한 외부성은 지역내 다수의 기업을 포함하는 밀도높은 공급자와 구매자의 존재가 필요한 자원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가변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지역내에 잠재적 사용자들이 많은 곳으로 숙련 인력을 집중시켜,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숙련 인력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숙련된 고학력 근로자들이 한 지역에 모이게 되며, 그들은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쉬워지고 기술개발이 빨라진다. 그러면 외부 지역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숙련노동력이 이런 지역으로 모여든다. 이러한 경향은 자기강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적 성장의 차이를 더 심화시키는 주요 메커니즘이다.(Martin and Sunley, 1998)

7) 경제지리학적 접근은 조절학파의 영향을 받았으며, 포드주의로부터 유연한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축적 체제가 이행하였다고 본다. 즉 포드주의적 대량생산과 제도적 구조사이의 조응이 붕괴되는 70년대 중반 이후 지역적 성장이 점차로 분기해 왔다고 본다.(Storper, 1993)

지역 경제성장의 성공을 클러스터의 성장으로 이해하는 Porter(1998)은 클러스터화가 가져오는 경쟁력에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첫째 종업원들과 공급자들에게 대한 접근의 용이성이다. 활력있는 클러스터들은 숙련있는 근로자의 풀을 이용할 수 있어 탐색 및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게 하며, 여러 다른 투입요소들의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 둘째로 전문적인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셋째로 클러스터들은 상품을 고객의 요구에 맞추거나 기업들의 활동을 조정하여 고객에게 클러스터를 매력적이게 한다. 넷째, 클러스터는 공공재와 여타 기관들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내 기업들 간의 경쟁은 기업들이 노동비용을 측정하고 그 성과를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클러스터가 형성된 지역내에서는 새로운 기업들의 창출이 유인된다. 클러스터 내의 개인들은 사업이 잘 구축될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들의 수요공급에서의 갭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진입의 장벽을 잘 넘을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자산들, 숙련들, 투입들, 직원들을 종종 클러스터 내에서 바로 구할 수 있다. 지역의 금융기관과 투자자들도 클러스터 내의 지역 산업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낮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이에 클러스터 내에서는 새로운 기업들, 새로운 공급자들이 양산된다.(Porter, 1998) 실리콘 밸리의 예를 보면 기업들의 창출을 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창업투자회사가 다수 있다.(정이환, 1994)

혁신 클러스터 등 경제발전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 내재적인 성장의 동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며, 크게 R&D 등의 기술개발을 강조하는 입장과 상호적 학습과정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학습을 강조하는 Asheim(1996)은 통상적인 R&D 모형이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다. 첫째는 새로운 기술의 근원으로써 연구에 대한 과도한 강조이며), 둘째는 혁신을 순전히 기술활동의 결과로만 본다는 것이다. Cooke and Morgan(1998)도 R&D 모형이 기술혁신에서 중요한 항상적인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기술 혁신과 그 경제 성장에의 기여는 불연속, 비확률성, 일경험에 의한 학습 과정, 사용과 실패의 과정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견해들은 혁신의 사회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는 것이다.9) 예컨대 Asheim(1996)은 상호적인 학습을 혁신과정의 근본적인 측면으로 간주하며, Camagni(1991, p. 8)도 기술혁

8) 이에 기술발전의 외생성을 전제하게 된다. 반면에 기술발전을 내생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슈페터리안적 경제학, 경제지리학, 진화경제학의 취지이다.

9) 기술의 선택은 반드시 효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의 기술은 그 사회에서 쓰일 수 있는 내재적 조건이 형성되어야만 사회에서 실용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증기기관 및 안경 등의 예에서도 나타난다.(Braudel, 1986) 이 점은 장인생산기술과 대량생산기술의 분기를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설명하였던 Piore와 Sable의 제2분기점 논의에도 해당된다.

신은 점진적인 사회혁신의 산물이며, 기업의 다양한 혁신 활동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집합적 학습과정에서 지역내에서 그리고 지역간 연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본다.

그러면 집합 학습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기제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해서 지역발전 및 혁신과정을 이루게 되는가?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III. 지역과 학습

1. 학습하는 경제

앞서 보았듯이 한 국가 내에서 각 지역들의 발전은 국민국가의 경제성장과 함께 수렴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에서의 차이는 단순한 자본(물적자본 및 인적자본)의 양적 차이만이 아니라 그 활용의 측면인 질적 차이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질적인 차이는 물적자본의 활용의 경우 인적자본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인적자본 활용의 경우는 인적자본의 활용성 증가를 위한 학습의 활성화에 달려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학습을 통해서 인적자본의 수준을 제고하고, 인적자본의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지식기반경제에서 핵심적인 성장동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지식은 항상 핵심적인 자원이었다. 자연자원들과 물적자본, 인적자본은 어떻게 무엇을 생산하고 소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엄격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식자원은 생산과 소비에서의 한계가 없다. 포스트포드주의의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지식을 기반으로하는 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며, 노동은 정보처리과정의 형태로 변화한다. 이에 학습은 더욱 중요해진다.

그런데 학습은 통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조직에서의 학습과정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Dosi and Marengo(1994)에 따르면 기업의 능력(competences)은 학습에 의해 결정된다. 그들은 기업의 능력들로 조직적 상호작용들, 규준들, 문제해결 방법들을 제시한다. 그러한 능력들은 상당한 정도로 관성적이며, 기업특수성으로 표현된다. 그것들은 기업특수적 자산이며, 학습에 종속되어 있으며, 실제의 문제해결에의 적용을 통해서 증가한다.¹⁰⁾

10) Morgan(1997)은 일본기업의 카이젠은 상호적인 학습과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R&D, 제조, 판매 부서간 정보흐름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그들은 기업을 학습하는 조직으로 특징짓는다.¹¹⁾ 조직의 지식은 학습의 특질에서 출현하는 것이며, 조직의 다양한 학습 과정들 속에서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태지워진다. 조직들은 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이해되는 공통의 원칙들, 코드들, 언어들의 집합을 통해서 조정을 달성한다. 그러한 집합이 기업문화이며, 종업원들에게 실질적인 공통 지식의 저장으로 정의된다. 조직은 이러한 공통의 지식 기반을 형태짓고, 보존하고, 변형하는 사회적 제도들이다. 공통의 지식 근거는 개인들 지식 기반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진화하며, 개인들에게 전적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것은 팡방송¹²⁾이나 원칙들, 언어들, 문화 등 사회적 제도들의 형태를 띤다.(Dosi and Marengo, 1994)

기업의 학습조직화는 지식의 창출 및 확산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친다. 첫째 학습 과정에의 폭넓은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다숙련과 네트워크 숙련이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된다. 셋째, 학습하고 그것을 생산이나 판매에 적용하는 능력이 현대기업의 생명력에 가장 중요한 차원이 되었다. 경영과 관리는 학습을 자극하는 관행들과 원칙들을 구축하는데 관련되고 있다. 이는 Lundvall and Johnson(1994)이 현대의 자본주의를 지식기반 경제일 뿐만 아니라 소위 학습하는 경제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우리는 새로운 국면인 '학습하는 경제'에 들어왔다. 학습하는 경제는 '일하면서 학습하며', '사용하면서 학습하는' 사회이다. 학습하는 경제는 개인들, 기업들, 지역들, 국가들의 경제적 성공이 그들의 학습하는 능력을 반영하는 사회이다. 학습하는 경제는 이전 숙련의 진부화와 새로운 숙련에 대한 요구가 매우 빠른 비율로 진행되는 사회이다. 학습하는 경제에서 학습하는 능력은 점점 더 개인들, 기업들의 상대적 지위를 결정한다. OECD 노동시장에서 증가하는 양극화는 변화의 가속도와 함께 증가하는 학습하기의 중요성에 의해 설명된다. 지역과 국가의 경제성장에서의 분기도 마찬가지이다.(Lundvall, 1996)

학습경제는 일부의 첨단 업종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 부문에 해당하는 것이다. Porter(1998)은 고기술이라는 용어가 통상 정보기술, 생명기술 등에 쓰이면서 경쟁에 대한 사고를 왜곡시켰고, 소수의 부문들만이 경쟁적이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을 가져왔다고 본다. 사실 저기술 산업은 없으며, 오직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실행들을 사용하지 않는 저기술 산업만이 있을 뿐이다.

Lundvall(1996) 역시 학습경제는 반드시 고기술 사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11) 학습하는 기업은 포스트포드주의 사회에 해당되는 조직이다.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기초로 하는 포드주의하에서 기업은 근로자의 숙련에 대한 의존을 최대한 줄이려 하였고, 근로자들은 학습할 필요가 없었다. 오직 학습은 과학자, 기술자, 경영자 등의 전유물이었고, 근로자들의 학습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12) 팡방송은 좀더 작은 사회단위, 즉 조직 내지는 공동체 등에서 사회적으로 굳어진 관행이나 관습들, 실행들의 총체를 나타내며, 조절학파의 이론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

고 본다. 학습경제는 지식집중적인 활동이 좀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이다. 학습은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진행되는 활동이며, 그 기회는 모든 성원들에 열려 있다. 그는 전통적인 부문에서의 학습과정의 구축, 새로운 지식기반 활동들의 구축이 오늘날 한국과 대만과 같은 예에서 보이듯이 발전도상국들을 위한 주요한 과제라고 파악한다.

학습경제의 중요한 측면은 기업들의 조직 양태들이 점차로 학습 능력을 제고하고, 다른 기업과 네트워킹하고, 수평적으로 상호의사소통하고, 부서와 부서 사이를 옮겨 다니기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정보의 수직적 흐름을 나타내는 고층의 위계를 가진 조직으로부터 정보의 수평적 흐름을 나타내는 납작한 조직으로의 변화는 학습경제의 또 하나의 측면이 된다.(Lundvall and Johnson, 1994) 그것은 후술하듯이 조직내에서의 암묵적 지식의 교환에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고층의 위계조직보다는 납작한 위계조직에서 신뢰가 더 잘 구축되는 것과는 관련된다.

2. 집합적 학습의 지역화

포스트포드주의 사회의 현대 경제에서의 유연성의 추구는 규모의 경제에 대한 한계, 노동의 분화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제는 혼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이상 지식의 결정적 형태가 아니게 된다. 그보다는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협조하는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Lundvall and Johnson, 1994) 그러한 의사소통과 협조는 학습하는 과정이며, 구체적으로는 집합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를 보기 위해 조직에서의 학습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를 먼저 보자. 조직에서의 학습의 핵심적인 문제는 가용지식의 활용과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한 탐색의 상충관계이다. 가용지식의 활용은 가용기술의 세련화, 일경험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 고효율을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가용지식의 활용은 관행(routines)을 통해 이루어진다. 관행이란 기업내에서 통상적으로 예측가능한 행위 패턴들을 의미하는 용어이며, 무엇을 어떻게 하고 투자와 생산, R&D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탐색은 혁신, 새로운 것을 찾는 것, 위험 수용, 새로운 기회의 포착을 위한 활동들을 포함한다. 탐색은 현재의 관행들을 평가하고 이들을 대체하거나 변형시키는 모든 조직적 활동을 의미한다.¹³⁾(Dosi and Marengo, 1994; Cooke and Morgan, 1998)

13) 관행(routines)은 유기체로 비유하면 유전자와 같은 것이며, 탐색은 적응과정이나 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관행들은 상당한 내구성을 가지며, 이는 왜 많은 기술적·조직적 변화가 경로의존적인 경향을 보이는가를 설명한다.

학습은 기업이 관행과 탐색(창조)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돕는다. 학습하는 능력은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에 의존한다. 즉 기업이 인식하고 동화하고 지식을 이용하는 능력은 현재 보유한 관련 지식들 수준의 함수이다. 흡수능력의 개념은 조직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직적 학습은 개별적 학습의 총합 이상이다.(Cooke and Morgan, 1998)

이렇게 포스트포드주의 이후 기업(조직)에서의 학습은 집합적 상호작용적 과정이다. 기업은 생산지식의 저장고로서, 항상적 학습과 지식의 창출 수단이다. 학습경제의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논자들에게도 이러한 인식은 동일하다. Lundvall(1996)은 학습하는 경제에서 학습은 교류적·집합적 과정이고, 지식은 네트워크와 조직들에 의해 공유되는 자산이라 본다. Asheim(1999)도 학습하는 경제에서 핵심적 경쟁 수단은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내재화된 상호적인 학습과정이라 본다.

Camagni(1991)은 집합적 학습의 발전에서 지리적 근접성의 주요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개인들의 면대면 접촉, 통상적인 정보의 흐름, 하청-원청의 협조 등으로 집합적 학습이 구성된다고 본다. 집합적 학습은 조직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조직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집합적 학습이 지역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이유를 Asheim(1999)는 형태를 띠기 어려운 상황적 지식과 비교역적인 상호의존성에서 찾는다. 이러한 학습의 '지역화'는 지역 집중의 주요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경제적 활력이 그로부터 기원하며, 그것들은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전할 수 없고, 그러한 것들은 타지역에서 쉽게 창조되거나 모방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성을 갖는다고 보며, 이에 학습지역이 성립한다고 파악한다.¹⁴⁾

지역에서의 집합적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제도적 사회적 요소들로 지역의 민간과 공공의 경제주체들 사이에 밀도 높은 인프라 구조 및 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특수한 지식기반, 기술자원기반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기반으로부터 기업들이 생겨나는 것은 지역적 집합 학습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세 번째는 고속련자들의 노동이동과 그들에 체화된 암묵적 전문성과 기술적 노하우의 확산으로 특징지어지는 지역노동시장이 있어야 한다.(Longhi, 1998)

이상 학습의 지역화가 이루어지는 주요한 요인이 상황적 지식 혹은 암묵적 지식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지식의 어떠한 성격이 지역적으로만 학습될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보자.

14) 일부는 학습지역을 좁은 의미에서 지역의 혁신관련 주체들이 강하게 그러나 유연하게 상호연계된 지역혁신전략으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연구자들은 지역의 제도적 소여들, 즉 규칙들, 실행들(practices), 관행들(routines), 습관들(habits), 전통들(traditions), 관습들(customs), 풍방송(conventions)들이 모두 학습지역을 구성한다고 파악한다.(Rutten et al., 2003)

IV. 지식의 성격 및 지역화

1. 암묵지와 코드화된 지식¹⁵⁾

지식은 정보 이상의 것이다. 정보는 지식의 특수한 요소와 일치한다. 그것은 조각으로 분할될 수 있고 정보인프라에 의해 먼 지역으로 보내질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은 숙련을 포함하며, 학습은 능력의 구축과정이다. 지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것은 교류적 집합 학습 및 학습의 지역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Lundvall(1996)에 따르면 지식은 know-what, know-why, know-who, know-how의 네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know-what은 사실들에 관한 지식이다. 여기서 지식은 정보와 가깝다. know-why는 자연, 인간, 사회에서의 움직임의 법칙과 원칙들에 관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기술 발전에 극히 중요하다. Polany(1958)는 과학적 활동이 항상 know-why와 know-how의 결합이라 본다.

know-how는 숙련, 즉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능력을 말한다. 이는 경제적 국면에서의 많은 활동들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know-how는 특히 개별기업 혹은 연구팀에 중요한 지식이다. know-who는 누가 무엇을 알고 있으며,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그것은 특히 전문성들을 끌어오기 위해 전문화된 그룹들과의 연계 구축의 능력을 포함한다.

지식의 전달의 측면에서 보면 know-what나 know-why는 용이하게 코드화될 수 있고 이전될 수 있다. 이에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자료에 접근함으로써, 즉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다. know-how는 도제제도와 같은 것에서 배워진다. 도제제도에서 도제들은 장인을 따르고 그에게 신뢰와 권위로서 의존한다.(Polany, 1958) know-how는 근본적으로 암묵적 지식이며, 용이하게 전달될 수 없다. know-how는 일하면서 학습하고 전문가와 교류하는 매일의 실행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know-who는 사회적 실행에서 얻어진다. 기술자와 전문가들의 커뮤니티들은 동창생들의 모임이나 전문직 과학자들의 모임에서 유지되는데 참가자들에게 전문가 동료와의 정보교환의 접근이 주어진다. 기업의 경우 know-who는 날마다의 고객, 하청업자, 연구기관, 여타의 기관들과의 접촉에서 개발된다.¹⁶⁾ 이는 사회적으로 내재된 지

15) 이 절은 주로 Lundvall(1996)에 의존하였다.

16) 대기업들이 기초과학 연구에 관계하는 이유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과학자들의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Lundvall, 1996)

식이고 공식적인 정보채널로 쉽게 이전될 수 없으며, 시장에서 팔릴 수 없다.¹⁷⁾

이렇게 지식은 크게 공식적, 코드화될 수 있는 것(과학-엔지니어링)과 비공식적 암묵적인 것(숙련근로자의 관행이나 기술적 실행), 그 둘의 결합인 것들로 나눌 수 있다.¹⁸⁾ 암묵적 지식과 코드화된 지식의 관계는 복잡하며 공생하는 관계이다. 코드화된 지식이 다루어져야 할 대상이라면 암묵적 지식은 그러한 대상을 취급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암묵적인 지식이 코드화되고, 또 새로운 암묵적 지식이 개발되고, 그것이 다시 코드화되는 나선형 운동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Lundvall, 1996) 이는 개인 및 조직의 학습에서 핵심적이다.

성격상 완전히 암묵적인 지식은 없을 것이다. 이에 현실적으로도 know-how를 코드화하여 이전하려는 노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즉 숙련된 전문가들의 마음의 작동을 시뮬레이션하는 컴퓨터기반 전문가 체계들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know-who 범주에도 전문가들의 이름을 등록하여 시장에 파는 DB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know-how의 이전은 완전하지 않다. 코드화가 진행될 때 통합될 수 없는 감추어진 암묵적으로 남아있는 직관적 종류의 숙련들이 있다. 또 이름의 등록만으로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통합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이전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의 정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코드화의 추세는 암묵적 지식과 일을 통한 학습, 교류에 의한 학습을 강조하는 효과를 갖는다. 우선 공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자료의 패턴을 이해하는 능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 새로운 것을 찾는 능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들 숙련들은 암묵적 요소들이며, 실제활동의 영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전문가들이 학습하는 경제에서 상대적인 지위를 잃지 않으며, know-how가 경제적 지식에서 중요한 요소로 남게 되는 이유이다.

코드화된 지식과 암묵적 지식은 보완적이다. 증가하는 코드화가 학습과 지식 축적 과정에서 암묵적 지식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용이하게 비용이 적게 드는 정보에의 접근이 많아질수록 정보의 선별과 효율적 사용에 관련되는 숙련과 능력들을 더욱 핵심적이게 한다. 이는 혁신과정이 가속화되고 있을 때 암묵적 지식이 지식의 점유와 유효한 사용에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Asheim, 1999)

17) 물론 인명록 등으로 조직과 그 구성원에 대한 명부집이 자료화되고 팔릴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구성원들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접촉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이다.

18) 그러나 코드화된 지식과 암묵적 지식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 관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암묵적 지식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지역적 생산체제의 가능성에 대한 숭배에 빠지게 되어, 코드화된 지식(예컨대 공식적 R&D)에 의해 지원되는 전략과 목표지향적 행동의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한다.(Asheim, 1999)

2. 암묵지의 지역적 코드화와 네트워크

Gertler(2003)은 암묵지에 관한 마이클 폴라니의 연구를 재검토하여,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이 경험적 인지에 한정되어 있으며, 사회적 상황의 기원과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두지 않았다고 파악한다. 그는 암묵지는 경제적 상황과 문화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에 기초를 두지 않고서는 추출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암묵지의 지역성을 강조한다.

즉 암묵지는 지역사회에 부착되는 끈끈한 상태로 유지되며, 지역적으로 코드화되는 것이다. 지역적인 코드화는 교류적 학습에 참가하는 사람이나 네트워크에 결합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된다. 학습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적으로 코드화된 know-how 지식을 얻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기술변화는 종종 대화와 토론을 요구한다. 지식-기반의 복잡성이 증가하면 조직들 사이의 협조는 더욱더 개발되는 경향을 보인다.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know-how의 요인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Lundvall, 1996) 즉 기술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더욱 혁신이 진보될수록 정교한 상호의사소통 과정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한 상호의사소통 과정의 가장 효율적 기제가 네트워크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지식기반 경제의 기업들에서 네트워크들이 증가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코드화된 지식의 공유를 위해서이다. 지식기반 경제의 점증하는 복잡성과 변화율의 급속함은 지식의 생산과 분배에서 장기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매력적이게 한다. 지역적 코드들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숙련들은 종종 그 네트워크에 결합된 사람들에게 의해 교류적 학습에 참여함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Sable(1994)는 포드주의 이후의 경제 조건이 왜 위계보다 네트워크에 우호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산업조직으로서의 네트워크 체계가 학습에 우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는 포드주의하에서 분리되었던 구상과 실행의 재통합 전략이 학습체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시장의 불안정 및 변화는 기업이 하청업자나 근로자로부터 학습해야 하고,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하청업자나 근로자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학습체계는 또한 참가자들의 위험을 분산시킬 뿐 아니라 높은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거래비용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생산체제로부터 학습체제로의 변환, 즉 학습에 기반한 동학적 체제로의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의미한다. 네트워킹을 통해 외부와의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창조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는 종종 다양한 정보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위계적인 기업보다 더 넓은 학습의 공간을 제공한다.(Asheim, 1996) 비공식적인 혹은 암묵적인 비R&D 지식의 사용과 확산을 용이하게 한다.

결국 교류적 학습은 협조와 네트워킹에 의해 이루어지며, 협조와 네트워킹은 지역적 인접성을 기초로 한다. 협조와 네트워킹은 또한 신뢰의 구축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류적 집합학습 과정의 복잡한 상황에서 신뢰는 더욱 중요한 근본적 역할을 한다. 학습의 대상이 되는 지식들은 복잡하고 질적이며, 대부분 지역적으로 코드화되어 있어 지역의 하위 그룹의 사용자들과 생산자들의 관계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다. 거래비용적 견지에서 순전한 시장은 지식을 이전할 수 없고, 그 대안은 시장을 압축하고 위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뢰가 있으면 파트너십을 통한 네트워크가 정보의 분배 및 교환을 위한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신뢰에 의한 파트너십에 의한 협조나 네트워크 등은 사회적 자본으로 강조된다. 신뢰는 다중적 차원의 개념이며, 믿음, 정직, 협조성, 타인에 대한 의무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찌기 Arrow가 간파하였듯이 신뢰는 절대로 시장에서 구매될 수 없다. 이에 신뢰 또한 사회적 자본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상호간의 지식과 신뢰는 지역환경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사회적 자본의 바탕위에서 교류적 집합 학습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한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의 형성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져온다.(Porter, 1998)

V. 학습지역 개념의 문제점

이상의 학습지역에 대한 논의는 경제지리학적 이론과 실제에 존재하고 있거나 존재하였던 학습지역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따라서 아직 종합적으로 논의의 틀을 갖추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하에서는 학습지역 개념에서 부족한 부분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완적인 설명을 첨부할 것이다.

먼저 학습지역의 넓이 및 구성에 대한 규정이다. 학습지역이 대도시에서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 몇 만 이내의 소도시에 해당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앞의 논의에서처럼 결국 학습이 지역에서 행해지는 주요한 근거는 암묵적 지식의 지역 코드화의 진전이다. 그러면 암묵적 지식의 지역적 코드화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지역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만일 특정 범위, 예컨대 기업내부 혹은 네트워크 참여자만을 위해 암묵적 지식의 지역코드화가 이루어

진다면 학습의 범위를 기업내부, 혹은 네트워크 참여자에만 한정할 것이며, 이에 학습지역의 범위가 아주 좁게 결정될 것이다. 다양한 네트워크가 학습지역에 다수 존재할 것이고, 그 네트워크들 참여의 범위가 학습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지역 규모의 크기는 Porter의 클러스터 개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Martin and Sunley(2003)은 포터의 클러스터 개념이 그 지역적 크기에서 모호하다는 점을 비판한다. Porter의 클러스터는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한 카운티가 될 수도 있다. 여러 업종을 포함할 수도 있고, 단일 업종을 위주로 할 수 있다. 다수의 업종을 포함한다면 여러 업종간에 공통적인 암묵적 지식의 범위는 매우 축소될 것이다.

학습지역에서의 기업들 규모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Marshall의 고전적 논의에 따르면 지역 집종의 외부경제는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작은 기업들의 지역적 집종을 통해 얻어진다.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집종을 통해 대기업이 내부적으로 달성하는 규모의 외부경제를 얻을 수 있다. 마셜 이후 경제지리학적 지역의 연구에서는 다수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내에 있는 대기업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며, 원하청 기업관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지역의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¹⁹⁾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그러할 것이다. 이 경우 지역내 네트워크 구성과 집합적 학습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학습지역에서의 학습 대상이 지역적으로 코드화된 암묵적 지식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공통된 견해이고, Boekema et al.(2000)은 지역학습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지만, 지역내에서의 학습이 정말 지역내 기업들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영국의 학습지역을 고찰한 Keeble and Lawson(1998)은 지역내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외부 기업들로부터의 학습이거나 자극이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학습의 내용이 지역적으로 코드화된 암묵적 지식 이외의 것으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이론적 논거가 부족하다.

연구자들은 네트워크가 시장과 같은 결정권한의 분산형, 기업과 같은 결정권한의 집중형의 중간 형태로서 학습 지역에서의 지역화된 코드에 입각한 암묵지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기제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기업들 및 관련 기관의 수, 네트워크 참가와 탈퇴의 규정, 즉 네트워크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19) Lorenz(1992)는 Lyon 지역에서 기업들간의 신뢰와 협조가 파트너십 전략(원청기업과 하청기업 사이의 수량, 가격, 작업의 질 등에 대한 장기적 관계 형성)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것을 고찰하고 있다.

대한 논의가 없다. 즉 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성이 독립적인 기업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네트워크가 기업간 원하청 관계 등 수직적 관계에 기초한 것인지, 또 네트워크 참가의 인센티브는 무엇이며, 네트워크 탈퇴시 제재 조치는 무엇인지 연구되어야 한다. 모든 파트너십이나 네트워크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개인 혹은 기관)가 되는 주체는 누구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학습지역에서의 기업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수의 연구문헌은 경쟁과 협조의 관계를 강조한다. 그러나 어떻게 경쟁하고 어떻게 왜 협조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 특히 협조는 대부분 신뢰관계의 형성에서 가능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협조는 신뢰가 아닌 힘의 관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이는 원하청 기업관계에서 잘 드러나는 예이다. 그리고 협조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혹은 이득의 공유가 있어야 하는데, 협조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거래비용적 설명 이외에는 별반 설명이 없다. 특히 협조를 깨는 기회주의적 행동의 경우 이익이 클 수도 있는데, 그러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및 기제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다.

학습지역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성공적인 지역들만 보았다. 이에 덜 성공적 지역에서 왜 덜 성공적인가, 그리하여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천적 대안을 주는 데 부족하다. 성공지역의 경우에 처음에 집적의 경제, 제도적 힘, 관리자의 정신적 모형들이 혁신환경을 창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일한 힘들이 단일한 거시문화를 만들어 내고 지역중심적 폐쇄성을 강화하고, 그것이 혁신을 압박하여, 외부 환경의 변화에 취약하게 하여 클러스터가 쇠퇴한다고 본다.(Pouder and John, 1996)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지역적 발전을 장기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모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학습지역에서의 인적자원개발에 관련한 논의는 거의 없다. 학습지역의 경제의 성장에서 자체적인 인력양성보다는 타지역에서의 인력 유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의 인적자원의 유입은 그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에 학습지역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고찰은 없다.

VI. 결론 - 지역 학습을 위한 정책 방안

제대로 된 학습지역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Mashall의 지역 집중의 외부성은 이미 집중된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집중되지 않은 지역의 성장 가능성은 낮게 한다. 지역경제가 학습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견실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의 존재가 필요하며, 그와 함께 대학 및 연구기관들도 필요하다. 실리콘밸리나 앵티 폴리스와 같이 여러 환경도 좋아야 한다. 또 초기적 투자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대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프랑스의 Sophi-Antipolis의 경험도 다국적 기업의 초기적 투자 및 외부에서의 투자 유입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학습지역 구축을 위한 지역 환경 개선 및 투자의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습 지역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의 역량강화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해야 한다. 이미 유럽의 RTP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그러한 과정은 쉽지가 않다. 이는 기업의 관행들을 변형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역량 강화는 기술적 능력, 기업가적 능력,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집합적 학습을 장려해야 되며, 기업들, 공공기관들, 다수의 연구개발 기관 및 훈련기관들의 네트워크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관행들을 정착시키는 것은 시간 및 자원을 필요로 하며, 중앙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Morgan, 1997) 특히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제도적 기반은 민간에서 쉽게 마련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학습 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네트워크가 실제로 가동되기 위한 기초로 사회적 신뢰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네트워크의 구축 및 발전을 위해서는 또한 기업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협회들은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협회의 성원들 내에 기술 문제들을 공유하게 하며, 지역의 집합적 학습 과정을 창출하여, 상보적인 이득을 창출한다.(Longhi, 1998) 실리콘밸리의 경우도 다수의 공식·비공식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기업이나 엔지니어들간의 정보교환이나 네트워크의 형성에 기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업협회이며, 여기에서는 정례 모임이나 세미나의 형태의 집합적 학습 과정을 통해 엔지니어들의 지식수준을 제고시키고, 기술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정이환, 1994) 이러한 지역 기업협회들의 창출 및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암묵지의 생산과 활용이다. 안정적 직무중 경험이 지속되면, 근로자들은 높은 수준의 문제해결 숙련을 갖게 되며, 생산과정은 숙련되고 경험많은 근로자의 암묵지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현재의 정규직의 비정규

직화 내지 고용의 불안정화 추세는 이러한 차원에서 크게 불리할 것이다. 이에 기업 자체의 고용관계의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지만,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동희(2000), 「우리나라 고용변동의 지역간 파급효과 - 4대 광역권을 중심으로 -」, 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학논집』, 제9권, 제2호, pp. 171-191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백성준 외(2002),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이환(1994), 「미국 실리콘밸리 첨단산업 발전의 사회적 배경」, 『지역연구』 3권 3호, pp. 15-35
- 정인수 외(2003), 『지역노동시장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Park, Heon-Soo(2001), "Dynamic adjustment process of regional labor markets",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3권, 제1호, pp. 223-236
- Asheim, Bjørn T.(1999), "Interactive learning and localised knowledge in globalising learning economies," *Geojournal*, vol. 49, pp. 345-352
- Asheim, Bjørn T.(1996), "Industrial Districts as 'Learning Regions': a Condition for Prosperity,"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 4, no. 4, pp. 379-400
- Barro, R. J. and Sala-i-Martin, X.(1995), *Economic growth*, New York: McGraw Hill
- Boekema, Frans and Kevin Morgan and Siliva Bakkers, and Roel Rutten(2000), *Knowledge,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 The Theory and Practice of Learning Regions -*, Edward Elgar, Cheltenham, UK. Northampton, MA, USA
- Braudel, Fernand(1986), *Civilisation Matérielle, Économie et Capitalisme*, Armand Colin Editeur, Paris, 주경철 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2』, 까치
- Camagni, Roberto ed.(1991), *Innovation networks: spatial perspectives*, Nelhaven Press, London and New York

- Cooke, Philip and Kevin Morgan(1998), *The Associational Economy - Firms, Regions, and Innov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Dosi, Giovanni and Luigi Marengo(1994), "Some Elements of an Evolutionary Theory of Organizational Competences", in Richard W. England, ed., *Evolutionary Concepts in Contemporary Economic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Gertler, Meric S.(2003), "Tacit knowledge and the economic geography of context, or The undefinable tacitness of being (there),"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vol. 3, pp. 75-99
- Gordon, R.(1996), "Industrial Districts and the Globalization of Innovation: Regions and Networks in the New Economic Space," in Xavier, Vence-Deza. and J. Stanlet Metcalfe, ed., *Wealth from Diversity - Innovation, Structural Change and Finance for Regional Development in Europe*,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Boston/London.
- Hauknes, Johan and Lennart Nordgren(1999), "economic rationales of government involvement in innovation and the supply of innovation-related services," *STEP report R-08*, STEP Storgaten 1, N-0155 Oslo Norway
- Jessop, B.(1994), "Post-Fordism and the State," in Ash Amin ed., *Post-Fordism - A Reader*, Blackwell. Oxford UK and Cambridge USA.
- Keeble and Lawson(1998), "Collective Learning Progress and Inter-Firm Networking in Innovative High-Technology Regions," ESRC Centre for Business Research, University of Cambridge, *Working Paper* No. 86
- Longhi, Christian(1998), "Networks, Collective Learning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Innovative High Technology Regions: The Case of Sophia-Antipolis," *Regional Studies*, vol. 33, no. 4, pp. 333-342
- Lorenz, Eeward H.(1992), "Trust, Community, and Cooperation: Toward a Theory of Industrial Districts," in Storper, M and Allen J. Scott ed., *Pathways to Industri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Lundvall, Bengt-Åke and Björn Johnson(1994), "The Learning Economy," *Journal of Industry Studies*, vol. 1, no. 1 pp. 23-42

- Lundvall, Bengt-Åke(1996), "The Social Dimension of The Learning Economy," *DRUID Working Papers* No. 96-1
- Martin and Sunley(2003), "Deconstructing clusters: chaotic concept or policy panacea?,"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vol. 3, pp. 5-35
- Martin, Ron and Peter Sunley(1998), "Slow convergence? The New Endogenous growth Theory and regional Development," *Economic Geography*, vol. 74, no. 3, pp. 201-227
- Martin, Ron and Peter Tyler(2000), "Regional Employment Evolutions in the European Union: A Preliminary Analysis," *Regional Studies*, Vol. 34, no. 7, pp. 601-616
- Morgan, Kevin(1997), "The Learning Region: Institutions, Innovation and Regional Renewal," *Regional Studies*, vol. 31, no. 5, pp. 491-503
- OECD(2004), *Building Competitive Regions: Strategies and Governance*, OECD
- Polany, M.(1958),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rter, Michael E.(1998),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November-December, 1998
- Porter, Michael, E.(2003), "The Economic Performance of Regions," *Regional Studies*, vol. 37, pp. 549-578
- Pouder, Richard and Caron H. St. John(1996), "Hot spots and Blind Spots: Geographical Clusters of Firms and Inno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1, no.4, pp. 1192-1225
- Rutten, Roel, Frans Boekema and Elsa Kuijpers ed.(2003), *Economic Geography of Higher Education - Knowledge infrastructure and learning region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Sable(1994), "Flexible Specialisation and the Re-emergence of Regional Economies," in Ash Amin ed., *Post-Fordism - A Reader*, Blackwell. Oxford UK and Cambridge USA.
- Scott, Allen, J. and Michael Storper(2003), "Regions, Globalization, Development", *Regional Studies*, Vol. 37, pp. 579-593
- Storper, M.(1993), "Regional "worlds" of production: Learning and innovation in the technology districts of France, Italy, and the USA," *Regional Studies*, vol. 27, pp. 433-455.